

고흥군, 하절기 감염병

예방 특별 방역 소독

버스터미널·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집중



고흥군보건소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감염병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및 다중 집합장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방역은 제5호 다니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 연막·

연무, 분무 방역을 실시하고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와 웅덩이 모기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이 이뤄진다.

또한, 읍면에서도 515개단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이상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위해 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마와 겹친 태풍이 소멸된 후 질병매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순천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 수상



순천시는 지난 23일 고양시 컨텍스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 문화재야행, 세계동물영화제,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

한 축제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성터 돌레길과 청수골 새뜰마을, 문화의 거리 및 청년들을 위한 청춘창고 등 도심관광 활성화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암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전역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관광자원의 보유와 더불어 문화관광체육부가 발표한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등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 우위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순천시의 이번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수상은 시 승격 70주년과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총력을 다하고 있는 '1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해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대상 수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민의 상·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 추천·접수

내달 9일까지

여수시는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를 오는 8월 9일까지 추천받는다. 25일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 널리 선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부문은 총 7개로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화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보양이다.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과 각급 학교장 등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자랑스런 여수인'은 관계, 범교계, 재계, 학계, 군인, 체육인, 문화예술인,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훌륭한 업적으로 여수를 빛낸 공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도 여수시민의 상은 여전 전남병원 정용길 원장이 수상했고, 자랑스런 여수인에는 문지영 피아니스트가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총무과(☎ 061-659-3105)로 문의하면 되고, 추천서 등 관계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고 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설명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3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 설명회에서는 곡성군 장학진흥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재단 운영 기본계획,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사항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사 측은 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군민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2%가 재단설립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의 역할과 필요

성에 대해서는 장학금 확대와 지역 인재양성 순으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은 재단 설립을 통해 진로 교육, 숲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지역 특화 창의 교육과 3D 프린팅, 드론, 코딩 등 4차 산업 미래 교육 등 다채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촌유학과 인성학교 등 외지인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곡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

한 결과 이같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재단으로 출연되는 출연금은 곡성군 예산 대비 0.55%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곡성군은 향후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전라남도 2차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재단 설립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1분기 내에 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완료하고 최종 3월 말까지 재단설립을 완료한다는 생각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양시, 도시공원 내 분수 본격 가동

광양시는 여름철 시민의 무더위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설치된 분수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되는 분수는 우산문화공원, 마동근린공원, 중동23호광장 총 3곳으로, 지난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가동된다.

분수 가동시간은 시간대별로 낮 12

시, 오후 2시, 4시, 6시, 7시, 8시로 하루 6회 각각 30분씩 가동된다.

단 월요일은 분수 시설물 점검과 청소로 인해 가동되지 않으며, 기상여건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여름철 무더위로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공원 내 분수 가동에 앞서 사전점검과 청소, 수질검

사를 완료했으며 운영기간에도 15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에 가동되는 분수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뛰어놀며 꿈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성료

보성군은 현장영농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2개 읍·면 32개 마을에서 농업인 6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마을단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열대저기압나방, 먹노린재, 차응애 등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충 적기방제, △농약허용 안전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농약안전 사용요령, △폭염, 풍수해 등 기후변화대응 재해대책 및 현장에로기술 해결, △고

품질 저비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여름철 작물 생육관리 요령, △농기계 안전사용,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했다.

또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병행 추진하여 예초기에 대한 안전 보호구를 보급하고,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함께 이루어져 농업인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보성=안규일 기자

구례군, 시가지 지적 재조사로 분쟁 해소

구례군은 구례 봉동지구에 대하여 인공위성(GPS)을 활용한 최첨단 측량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을 해결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구례 봉동지구 지적 재조사는 경계가 동남쪽으로 각각 1~3m 밀려있어 건물 신축 시 지적을 확정할 수 없고, 법원 분쟁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난 19일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례읍 봉동리 358-1번지 일원 204필지, 37,615㎡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였다.

군은 읍 시가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지적 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